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금장사 산사음악회' 현장

도심 산사의 시원한 산바람 귓가에 흐르는 감미로운 선율

이것이 바로 '산 교육'

보리공부방 30여명 아이들 방과후 배운 타악기로 공연
신나는 풍물놀이 장단에 어른들 '잘한다~' 환호성 물결
서양음악과 국악의 만남 · 거문고 설명 등 음악 교육도

서울은 참 복잡하다. 한낮에 서울 큰 길을 걷다보면 빵빵거리는 자동차 소리만 가득한 것 같다. 하지만 서울에는 좋은 산을 끼고 맑은 공기를 자랑하는 동네, 또 그런 동네에 자리 잡은 사찰도 꽤 있다.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금장사가 바로 그런 곳 중 하나다. 도심에서 살짝 벗어나 자연 속으로 빠져든 절, 그곳에서 6월 2일 저녁, 작은 '축제'가 열렸다. 금장사 보리방과후 공부방(이하 보리공부방) 아이들과 함께한 '초여름 산사음악회'다.

음악회? 왠지 어렵고 불편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 청중은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이라도 괜찮다. 객석은 흙바닥과 풀밭 위에 깔아놓은 자리다. 시원한 산바람과 함께 기분 좋게 흘러가는 음악을 온몸으로 맞아들인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함께 나와 가끔은 떠들기도 하는 음악회. 금장사 음악회는 바로 그런 편안한 음악회였다.

"자, 여러분 차례니까 지금까지 연습한 거 잘 보여줍시다!"

작은 음악회 문을 연 공연은 보리공부방 아이들 30여명이 참여한 우리 타악기 공연이었다. 보리공부방 아이들을 지도해온 효석 스님이 아이들을 챙기며 힘찬 응원과 함께 아이들을 내보냈다.

공연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각자 손마다 든 장구며 징, 소고를 배운 대로, 정성껏 흔들고 두드렸다. 아이들은 이날의 공연을 위해 자그마치 6개월 넘게 연습해 왔다. 장구의 경우 꽤 무게가 나가서 아이들이 메고 다니는 것만 해도 용하다. 설마 우리 아이가 저렇게 잘할 줄이야. 객석에서는 온통 '우리 ◯◯ 잘한다~'며 아이들의 솜씨를 보고 흐뭇해하는 어른들의 환호성 물결이다. 물론, 아직은 서툴다. 그냥 두드리면 될 것 같아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풍물놀이니까.

보리공부방은 이미 홍은동에서 인정받고 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해 학교를 마치고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잡아주고 보듬어주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보리공부방에서 조금씩 연습한 성과가 이날 유감없이 발휘되었으니 홍은동에서 이곳의 존재가 더욱 소중해진 순간이다.

그렇게 타악 공연을 마친 아이들의 얼굴에는 보람찬 미소가 가득했다. 조금 더 잘 할 걸, 하는 아쉬움도 조금은 섞여있었지만 다들 열심히 했다. 지켜보던 주지 본각 스님을 비롯한 금장사 스님들의 눈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묻어나고 있었다.

아이들에 이어 산사음악회를 꾸려간 사람은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 언젠가 홍은동 마을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꼭 한 번 연주회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던 강 단장은 바이올린, 첼로, 건반의 3중주를 준비했다. 서양악기에 서양음악이 절과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이미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음악은 산사의 어스름한 밤을 수놓았다.

산사음악회에 또 우리 가락이 빠질 수 없다. 거문고와 대금 2중주다. 신기한 듯 쳐다보며 거문고인지 가야금인지 헷갈려 하는 아이들을 위해 거문고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것이 바로 '산' 음악 교육이다.

"거문고는 줄이 6줄이에요. 그리고 악기에는 음정을 낼 수 있는 '괘'라는 것이 있고요, 연주 할 때는 손가락이 아닌 '술대'라는 도구를 사용해요."

갈고 닦은 소고춤을 공연하는 어린이들. 사진제공=금장사

니르바나 강형진 단장이 선사하는 국악과 양악의 만남.

분위기가 무르익고 날이 어두워지자 관객들의 손에 있던 반딧불 전등에 하나 둘 불이 켜졌다. 모두 반딧불이가 된 것이다.

음악회의 마지막은 '화합'의 장이었다. 강형진 단장이 동요와 대중가요를 연주하자 객석에서는 모두 노래를 따라 불렀다. 신나는 연주와 신나는 객석. 때 이른 더위를 잊고 온가족이 함께 즐겨서 그런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기분 좋은 표정이었다.

보리공부방에 다니고 있는 은경이(홍연초 5)는 공연 내내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원래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은경이 같지는 않았다. 간간히 스님들이나 강형진 단장이 주의를 주어야 할 정도로 산만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아이들에게 올바른 음악 감상 태도에 대해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랬기에 이날 금장사에 있었던 아이들은 즐겁게 기억할 것이다. 자신들이 직접 공연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느낀 산사의 어느 날을 말이다.

초여름, 산사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빛나고 있었다.

글 · 사진=김강진 객원기자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는
만2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숲속놀이터'가 진행되고 있다. 바람놀이터, 숲속극장, 흙놀이터, 물놀이터 등 네 가지 테마방으로 꾸며져 있어 우리에게 낯익은 자연과 문화의 감성체험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8월 26일까지.(02)3455-9271

서울 봉은사에서는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주최로 '제39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가 열린다. 기간은 6월 16일~17일이며 재미있는 여름불교학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댄스, 마임, 찬불가 및 율동을 배울 수 있다. 선착순 150명 모집.(02)738-7860

강원도 철의삼각지 전적지에서는
6월 23일 철의삼각지 현장체험 탐방이 있을 예정이다. 철의삼각 전적지는 6·25전쟁 당시 중부 전선의 전략적 요충지로, 민간인 출입이 허용되면서 6·25의 참상을 보여주는 산 교육장이 되고 있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ihwarang.or.kr).(02)2235-2673

전남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6월 14일~16일까지 '제9회 예쁜엽서 전시회'가 열린다. 전남 동부지역의 초·중·고등학생의 참여로 이루어진 예쁜 엽서 공모전에서 입상한 예쁜 엽서작품전시회, 청소년들의 명랑하고 건전한 가치관이 담긴 예쁜 엽서들을 감상할 수 있다.(061)753-9106

부산박물관에서는
부산-상하이 수교 14주년 기념 특별전시회로 상하이박물관 소장 '중국 고대 청동기·옥기'전이 열린다. 기간은 6월 15일~9월 9일이며, 중국 고대(BC4,000 ~ AD220) 청동기 및 옥기 95점이 전시된다. (051)624-5343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 행 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네이버(NAVER) 주소창에 한글 '만행화'를 치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